

## “남다른 도전시도 했고 많은 것 成就했다”

### 박윤국 시장, 민선4기 1주년 기자회견서 밝혀



박윤국 포천시장이 민선4기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을 미래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천101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을 들었으며 이외에도 경기연구원센터 설립, 포천 종합무역센터 설립, 포천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꼽았다.

특히 박 시장은 “군용항공 기지를 활용한 지역공항 유치사업을 그의 역점시책 중 하나로 들며 2008년 개항을 목표로 항공대학 유치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며 “포천 아트밸리 조각공원을 비롯하여 롯데관광개발과의 산정호수, 백운계곡관광지 개발, 스키장, 온천 등 복합관광 휴양도시 건설 추진, 경화관광벨트화사업 등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체육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한 박 시장은 “지난 5월 열린 경기도체육대회에서의 우승으로 7연패 무패행진을 하고 있다”며 “포천시가 명실상부한 체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한해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소흘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이라고 밝히며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소흘·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포

천축구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체육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한 포천시가 자족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반도시 이뤄내야 하는 신도시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2015년 준공목표로 3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만평 규모에 인구 6만 명을 수용하는 고품격 명품신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건설, 의정부-포천신도시간 BRT(간선급행버스)구축사업, 제2의곽순환도로사업 등 SOC사업이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소외받는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과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해 포천시

의 미래를 키워가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가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율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착수했으며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학교 숲 만들기, 전 시의 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자연자원을 더욱 보존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 시장은 “자치역량 강화와 고품질 행정서비스구현이 시민만족을 위한 최고의 방안”이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멘토링 제도 운영, 간부공무원의 혁신메시지 전달 등 혁신교육 및 지식형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선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박윤국 포천시장은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1년이라는 세월은 중장기 구상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포천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입기 중에 시작된 일들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비판과 따뜻한 격려로 힘을 한데 모아 달라”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7월 3일 포천시청 3층 회의실에서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

고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시장은 “무엇보다도 인재양성과 공교육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며 “5개 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현재 3개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1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 공교육 원어교사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등 2010년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으로

## 40세 이상 출생자 대상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대상 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지사장 정홍식)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특정암 검사는 세대주 및 만 40세(1967.12.31 이전 출생자) 이상 세대원중 흡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하며 2006년도 검진대상자중 미수검자는 공단의 확인을 거쳐 검진 가능

하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40세(1967년생) 및 66세(1941년생)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1,2차 항목 통합 및 조정, 골다공증, 치매검사, 검진결과 상담 및 생활습관 평가 및 개선처방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하며 비용은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제공으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정보전문포털사이트 건강in’을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인터넷: http://www.nhic.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으로 하면 된다.

정병만 기자 jpk61@paran.com



포천소방서, 긴급구조 119체험캠프 참가자 모집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과 단체생활을 통해 협동심을 함양시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119정신을 심어 주고자 실시되는 ‘2007 긴급구조 119체험캠프’ 참가희망자를 7월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119체험캠프는 8월9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소방학교에서 한국119소년단원 및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 지금 포천은 이렇다③ 신입동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없나

### “상권침체 상인들 갈곳 없다” 아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장 활성화 기대

“밤 10시만 되면 신입동은 죽은 도시 같아요, 포천 상권이라는 게 없어진지 오래 되었어요.”

이 말은 신읍 사거리에서 30년 동안 신발가게를 운영해 온 이 모씨(61세)의 이야기다.

이 모씨는 8평 남짓한 신발가게를 운영하면서 3명의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생활비는 물론 일부 여유자금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임대료를 받기도 힘들다고 한다. 이씨는 “IMF때 경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때보다 오히려 매출액이 1/3도 안된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신입동 재래시장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게다가 신읍사거리 - 천주교간 도로 건설을 하고 있어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장사가 거의 안된다고 한다. 이씨는 “IMF때까지만 하더라도 송우리 보다 상권이 훨씬 나았는데 사람이 줄어들고 5일장으로 인해 장사가 더 안된다”면서 “아침 6시20분경이면 가게에 나오는데 한숨만는 생각만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신입동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포천동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천시 인구통계에 의하면 2003년 12월말 현재 포천동 인구는 1만9천964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1만9천690명, 2005년 1만9천263명, 2006년 1만9천83명, 2007년 6월30일 현재 1만8천73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소흘읍 인구는 2003년 3만1천719명이었던 것이 2004년 3만3천241명, 2005년 4만1천473명, 2006년 4만15천382명, 2007년 6월말 현재 4만6천2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녁이면 북적거리던 신입동 재래시장은 최근 밤 10시경이면 거의 장사를 하지 않는다. 경기침체로 소비성향이 변하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형태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라는 게 상인들의 판단이다.

게다가 송우리 주공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신입동 거주자들이 송우리로 이동한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의료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등 관공서들이 송우리 지역으로 이동한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 여기에 5일 시

장 상인들이 물건을 낮은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감소했다.

신입동 재래시장이 침체에 놓이자 상인들, 특히 건물주 34명을 중심으로 포천동 중로 상가변영회를 구성하고 타개책을 찾고 있다. 이들은 신읍사거리-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관련해 상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천동 중로 상가변영회 유광택 회장은 “20개 건물 중에 4개 혹은 5개 상가가 임대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생생했던 선금임대료나 권리금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임대료를 크게 낮추었는데도 임대가 되지 않아 건물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가들이 많다”면서 “신읍사거리-천주교간 도로가 빨리 개통되고 시장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신입동 상권침체에 대해 유 회장은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과 더불어 신입동 인구가 송우리로 이동하면서 상권 구심체 상실, 5일장 확장, 포천 재래시장 상인들의 안일한 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상가변영회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있다”고 밝혔다.

포천동 중로 상가변영회를 중심으로 상인들은 신읍사거리 - 천주교간 도로 개통에 맞춰 중소기업청 영세상가 지원금을 지원 받아 삼점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재래시장의 다양한 장점과 대형마트나 5일장 장점을 도입해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유 회장은 “신읍사거리-천주교간 중로 도로개통에 맞춰 영세상인 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주차문제 등 편의시설과 유통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로가 생기면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고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자금지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 포천 5일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시장 조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제 7대 경기도의회 1주년

# 경기도의회는 1,10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는 1,100만 도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모여사는 경기도는 그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전국 어느 곳 보다 많습니다. 지난 1년간에도 1,100만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경기도의회. 앞으로도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1,100만 도민의 귀와 입이 되어 도민의 가려운 곳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해결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1년 동안의 성과

- 231건 의안 처리와 120여건 의원 발의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75건 시정 조치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106건 진정민원 처리
- 140일로 회기를 늘려 일하는 의회상 정립

**의** 경기도의회